



문서번호 행정 2015-1107

수 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전화 : 02-2125-9600 nhrck@humanrights.go.kr)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제 목 11월 14일 경찰의 폭력진압 및 인권침해 실상 조사 요청서

날 짜 2015. 11. 27. (총 2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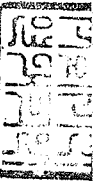
11월 14일 집회에서 중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 등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실상을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이하 11.14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위법적인 살수포에 중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이 지금 병상에서 사투 중입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이번 사건처럼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오늘의 현실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의 사건과 같이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공권력에 의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께, 11.14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중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을 포함해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바,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을 신속히 그리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백남기 농민은 11.14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살수차의 직사에 중상을 입고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참가자들이 최루액이 혼합된 살수포에 맞아 골절 및 두피 열상, 홍채 출혈 등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기자 등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





면, 이날 경찰은 살수차 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참가자들이 도착하거나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전에 차벽부터 설치하고 이에 근접하자 살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살수포를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상반신뿐 아니라 얼굴에 직사하였고, 물살세기에 관한 기준도 준수하지도 않은 채 2500~2800rpm로 쏘았고,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호를 하려는 구조자를 향해서도 살수포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정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조사하여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이번 11.14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빚어진 인권침해 실상을 조사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회 당시 발생했던 인권 침해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5. 이에 이성호 인권위원장께 요청합니다.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여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장께서는 지난 8월 13일 취임사에서 "행정, 입법, 사법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권위의 독립성은 물론 이념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11.14 집회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실상에 대한 조사가 제7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하신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

